

무주군, 백신 접종 인증배지 배부

일상회복 지원·공동체 의식 제고 위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군민 대상

무주군은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접종 인증배지를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군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래 지난 15일 현재까지 무주군 전체 접종대상자의 50.2%인 약 1만744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 순항 중이다.

군은 연내 접종 대상자(연내 4,03명) 12월말 기준의 89%(접종완료)를 목표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운영 방침과 매뉴얼에 의거 안전하고 순조롭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인증배지를 배부하고 있다.

배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또는 보건의료원 등을 통해 배부하며, 이외에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예방접종에 대한 동기부여에 주

력하는 등 접종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안전재난과 오해등 과정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에 앞장서

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고원물' 운영위원회 위촉

진안군은 16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물'을 새롭게 구축하고 개장하기 위한 진안고원물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관내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전문가와 관내 소비자단체, SNS 활동가 및 전자상거래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위촉위원 8명을 최종 확정했다.

진안고원물 운영위원회는 진안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의 새로운 구성, 입점 농가 및 업체의 선정, 쇼핑몰 활성화 및 판매도 제고 등 운영 방식의 공정성과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일인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이후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 존치 여부와 활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식 후 진안고원물 구축 및 운영방식,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계획에 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시장성장과 지자체 대응방안에 관한 열린 토의로 마무리됐다.

전춘성 군수는 "고령의 농업인이 대부분인 우리 군의 농업이 미래의 핵심 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격변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한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 개장과 안정적 출발을 위한 과정에 진안군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374명에 장학금 지급

초·중·고 장학생 133명·대학생 241명에 2억7000만원

무주군은 16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2억7,000만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2020)한 대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374명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초·중·고 장학생(고교진학 및 특기장학생)은 133명, 대학생(반디 장학생)은 241명으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고교진

학 장학금 20만 원씩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

특기장학생(대회 1위 입상자)에게는 초등학생 50만 원 중·고등학생 60만 원이 지급됐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장학생 여러분이 군민들의 지원과 사랑을 잊지 말고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 인재양성의 선순환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16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계면 지사협, 저장강박증 주민에게 '도움의 손길'

장수군 장계면과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저장강박증으로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안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16일 장계면 등에 따르면 대상가정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동네 고물, 쓰레기 등을 모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방치해 놓은 쓰레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3살 난 아이도 생활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했다.

이를 파악한 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를 통해 대상자 가족을 위해 홀클리닝 봉사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장계면은 가족들의 위생문제에 안전까지 위협당하고 있어 가족을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도배 장판 교체 및 가구 수납장 등을 지원했다.

홀클리닝 이후에는 장수군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아동 사례관리 및 부모교육 등을 실시해 폐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농촌협약 국비 300억 확보

전춘성 군수 발품행정 '결실'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인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그 동안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촌협약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를 만나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대한민국의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진 군수의 발 빠른 발품행정이 취임 후 1년여 만에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진안군수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아직 타 지자체에서는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이 한정적이지만 진안군은 11개 읍·면에 중심지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이 모두 선정돼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농촌지자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진안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공간분석,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중심기능을 분석하고 생활권을 선정해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등 타 도시로 유출되는 군민을 진안군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군민 모두가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타 도시로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안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다슬기 치패 45만패 하천에 방류

장수군은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16일 장계·계남·천천면 일대 하천에 다슬기 치패 45만패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이날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의 장수군 토종 다슬기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cm 이상의 다슬기 치패다.

다슬기는 하천의 유기물과 이끼류, 동물의 사체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며, 간 기능회복 등 약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유용한 수산자원이다.

성영은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토산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하여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기 진안군 효지도사 양성교육 개강

진안군과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총재 소순갑)은 지난 15일 진안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제1기 진안군 효지도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교육생과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강행사와 더불어 '효가 살아야 나라가 다다'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제1기생으로 선발된 10여명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11주 간에 걸쳐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효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수료자들은 효 지도사로써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기관 및 단체 현장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교육을 실시하고, 효의 근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단순 양성 교육 이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교, 어린이집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